

2021년 4차 주거복지분과 회의록

일 시	2021년 4월 15일(목) 10:00 ~ 11:30					
장 소	화상회의					
참석자 7/12 공(2/5) 민(5/7)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김매옥(공공분과장)	0	원윤희(공공)	X	김기자	0
	오현재(민간분과장)	0	유은선(공공)	0	김소영	0
	한아름(총무)	0	장현익(공공)	X	박효영	0
	강아름(공공)	X	강신숙	0	심지원	X
회의주제 및 안건	<p>1. 보고 및 공유사항</p> <p>1) 기관 행사 및 사업 보고</p> <p>2. 안건 논의</p> <p>1) 2021년 주거복지분과 공동사업 세부 논의 - 주거복지정책 예산분선 관련 내용 공유 및 논의</p> <p>3. 기타</p> <p>1) 차기회의 일정</p>					

회 의 결 과

1. 보고 및 공유사항

1) 기관 행사 및 사업 보고

- 주거복지지원센터

- 주거복지 인식개선과 네트워크 강화 방안, 집수리 정책 주제로 토론회

5월 19일, 비대면 줌으로 토론회 진행 예정

- 수원시 주거복지팀

- 청년층,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청년층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 중. 특히 주거부담이 가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현안임. 시정연구원에 현황 수시과제로 해서 연구 예정임. FGI 진행 예정

-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인해 주거문제가 심화된 가구 대상으로 6개월 임시거주 주택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음. 기존 10가구 지하층 + 10가구 지상층 가구 지원받아 보다 많은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수원지역자활센터

- 주거안전망 공실 3개소 집수리 필요한 상황으로 욕구는 있으나 입주가 안되고 있음. 주거안전망 16호 모두 반지하임. LH에 지상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중임.

- 청년사회적주택(방3) 1동 셰어하우스로 운영. 개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셰어하우스에 대한 욕구가 낮아지고 있음. 원룸형 청년사회적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LH 확인 결과 부동산 비용이 상승되면서 원룸형 청년사회적주택 공급계획이 없다고 확인되었음.

- 이외, 1인 공동체 공유부엌 10명 대상으로 진행중이며, 목공공방, 도예공방 등을 새로 오픈, 광고산 화초사업단도 리모델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안건 논의

1) 2021년 주거복지분과 공동사업 세부 논의

- 주거복지정책 예산분선 관련 내용 공유 및 논의
- 예산분석 개요 및 향후 추진일정 공유
- 주거복지 정책 관련 주요영역 논의

주거복지 정책 영역 관련 의견 정리

- 주거상향(공간적) - 예) 반지하 거주자에게 주거상향 우선순위 부여 등
- 거주이전비용지원
- 보증금지원(임대료는 주거급여로 해결되나 목돈이 되는 보증금지원이 필요)
- 입주시 기본적인생활에 필요한 물품지원(전기밥솥, 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 등)
- 보육원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 정착금을 받아서 나오는데 이 부분으로는 실질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함. 이에, 지원이 필요함
- 수원휴먼주택 대상 확대
- 사회주택 - 경기도형, LH형을 지원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임
- 집수리사업 - 단순히 고쳐주는 것 말고 일정부분 지원+본인 부담 차상위 또는 경계 가구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안 필요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집정리를 통한 주거질 향상 - 주거환경개선 (수리가 아닌 정리를 지원하는 방식)
- 이사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음
- 주거이전과 관련된 비용 -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짐보관 사업 운영중

※ 현재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영역 &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예산분석 영역 정리 - 담당간사

※ 예산분석 영역 정리 후 공유 - 차주 월요일까지 공유 예정

- 분석 대상 부서 및 담당

: 도시재생과 - 한아름, 오현재

: 사회복지과 - 김소영, 박효영

: 여성정책과, 청년정책관, 노인복지과 - 강신숙, 김기자

- 분석대상 예산 : 수원시 본예산 (2019~2021년 / 3개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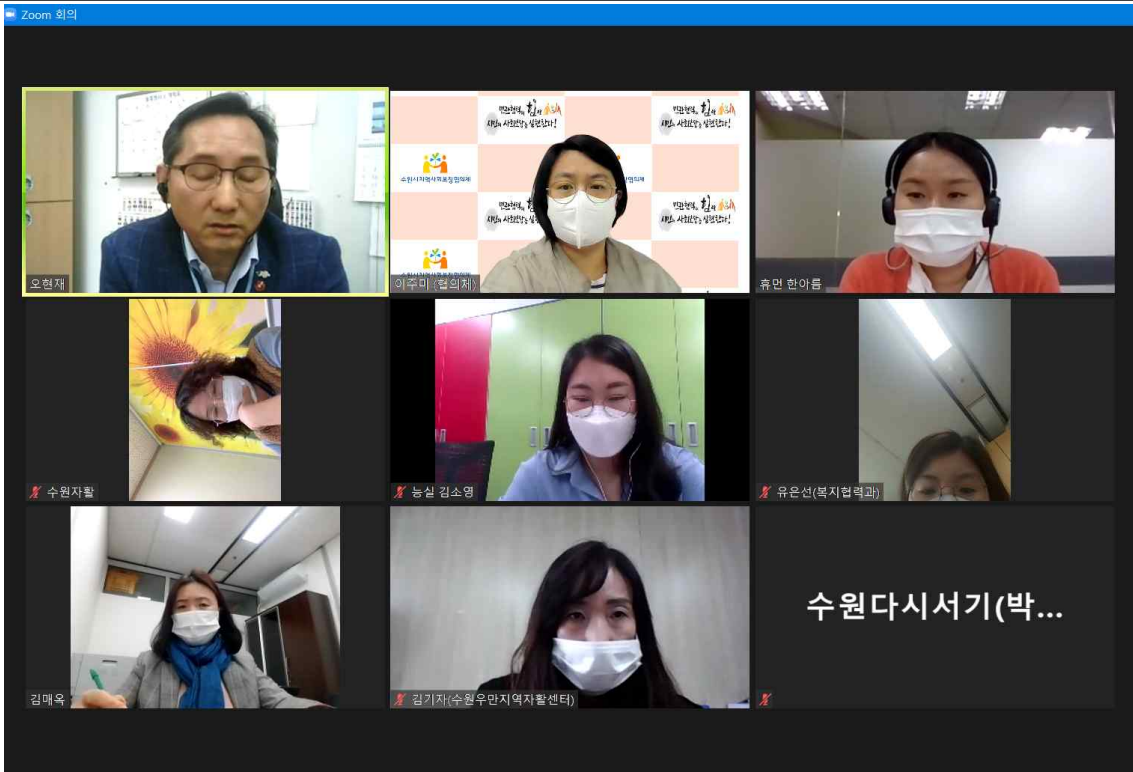
3. 기타

1) 차기회의 일정

일시 - 2021. 5. 20.(목) 10:00

장소 - 화상회의

회의 진행 사진 (화상회의)



첨부1.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중간평가 - 주거복지분과분과 의견 속기록

○ 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 간의 연계성이 적절한가?

- 목표, 추진전략, 세부사업 간 연계성은 어느정도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음. 공급, 정보제공, 기존주택 개조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음. 주택개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기관에서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총괄하여 파악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음. 수원 관내 기관,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있다면 연계 및 정보제공을 할 때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들이 수원시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수원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 집수리 관련해서 시민들의 높은 욕구를 반영했을 때 지원조례 제정 관련 의견, 임대료 주거복지 사다리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낮은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임시주거공간 이용 시 정주의식이 높은 주민(예 노인)의 경우 거주지 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 임대료 지원처럼 거주지역을 유지하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주민 욕구가 반영된 내용들이 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초기 계획이 비교하여 폐지, 축소, 비예산 등으로 변경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임대료지원사업이 폐지되긴 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됨. 긴급주거로해서 임대보증금 지원을 하는데 월세나 주거급여 대상이 아닐 경우 어려움이 있음. 시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이 되면 좋겠음.

○ 계획 수립, 추진,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 모니터링 시 어떤 자료를 봐야할지 어떤 의견을 제출해야 할지 막막한 부분이 있음. 보장계획 모니터링에 대한 위원 역량강화가 보완되었으면 좋겠음.

- 주거복지 네트워크가 많아지고 있다고 체감되고 있음.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거가 막막한 영역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인 분야가 되어 가고 있음. 예전보다 같이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다 생각됨. 단, 민-관의 연계망이 보다 촘촘해져 상호 정보교화 및 신뢰감 증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임.

-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대해 공공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음. 이러한 부분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시민, 관련 기관, 단체들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임.